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칠레

Republic of Chile

2022년 3월 8일 | 선임조사역(G2) 김은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756천 km ² 	인구 19.7백만 명 (2021 ^e)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GDP 3,313억 달러 (2021 ^e) 	1인당GDP 16,799달러 (2021 ^e) 	통화단위 Peso(Ps) 	환율(US기준) 758.96 

- 남미 대륙 서부 남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칠레는 181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와 인접하고 있음. 환태평양 조산대에 접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잦은 편임.
- 구리(세계 1위), 리튬(1위), 레늄(1위), 몰리브덴(4위)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함. 특히 구리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리의 생산 및 수출이 GDP의 약 10% 및 총수출의 50%를 점유하고 있음.
- 정부의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브라질, 멕시코에 이은 중남미 3위의 FDI 유치국임.
-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에 이은 두번째 OECD 회원국으로, 2012년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을 결성하여 중남미 신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 6. 12 수교 (북한과는 1972.6.1 수교, 1973.9.19 단교 후 1992.9.25 재수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78), 사증면제협정(80), 항공협정(80), 경제기술협력협정(83), 문화협정(84), 투자증진 및보호협정(99), 이중과세방지협약(03), 자유무역협정(04), 원자력평화이용협력협정(06), 운전 면허상호인정협정(08), 취업관광프로그램협정('16), 사회보장협정('17), 방위산업군수지원협정('17), 국방협력 협정('19)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1,214,356	866,536	1,573,061	섬유,전자·전기제품,자동차,기계류
수입	3,959,509	3,543,256	4,858,811	동, 목재, 수산물, 유기화학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9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94건, 857,612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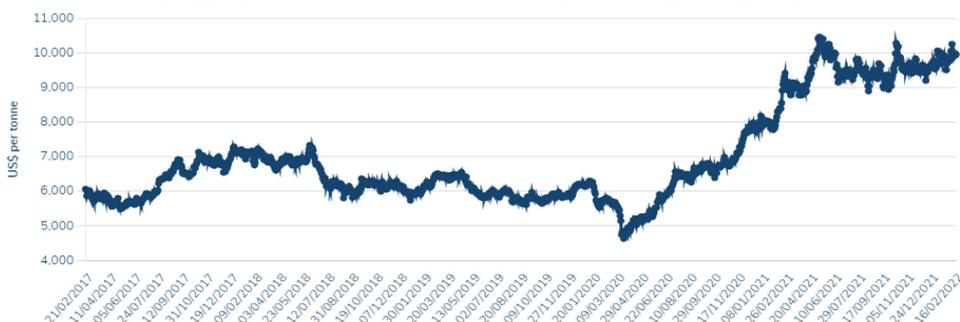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1.2	3.7	1.0	-5.8	11.0
소비자물가상승률	2.2	2.3	2.3	3.0	4.2
재정수지/GDP	-2.6	-1.5	-2.7	-7.1	-7.9

자료: IMF, EIU

2021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플러스 경제성장 회복 추정

- 칠레 경제는 광물(구리 등)과 농수산물(과일, 생선 등) 수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 특히 광업은 GDP의 10%(2020년, 칠레 중앙은행), 전체 수출의 50%(2016~20년, trademap) 및 FDI의 32%(2019년, Santander)를 차지하여, 원자재 국제가격 및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라 경제성장이 좌우되는 구조적 특성을 보임.
- 2010~13년 칠레 경제는 주요 광산 및 전력 프로젝트 투자가 확대되고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수요가 증가하여 내수와 수출 모두 성장을 견인하면서 연평균 5.3%의 건실한 성장을 시현함.
 - * 연도별 경제성장률: ('10)5.8% → ('11)6.1% → ('12)5.3% → ('13)4.0%
- 2014년 이후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과 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2%대로 둔화되었고, 2018년 시장 친화적인 피네라 2기 정부 출범으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7%로 일시 반등하였으나, 2019년에는 수도 산티아고의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다시 둔화되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한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국가 재난사태 선포에 따른 경제활동 둔화 등으로 -5.8%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정부의 경기부양책, 원자재 수출 활성화, 기저 효과 등으로 11.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경기 회복세는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보리치 신정부 출범 및 제헌의회의 신헌법 제정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칠레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 등으로 인해 2%대 초·중반의 더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구리 국제가격 추이(2017.2월~2022.2월, 미 달러/톤)



자료: LME

국내경제

재정수지 적자 폭은 코로나19 대응 지출에 따른 확대 이후 점진적 개선 전망

- 20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 감소 및 경기 침체에 따른 관세·법인세 등 세수 감소,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한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2020년 -7.1%, 2021년 -7.9%(추정치)에 달하였음.
- 칠레 정부는 2020년 중 취약계층 앞 현금 지급, 보건·의료체계 강화, 코로나 피해 기업 앞 유동성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340억 달러, GDP의 13%에 상당)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50%, 2021~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추이에 따라 나머지 50%를 유동적으로 배정하였음(IMF).
- 2022년에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세수 증가, 경기부양책 규모 축소에 따른 재정지출 감소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1.6%(IMF)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정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지원책의 일환으로 2020년 7월, 12월 및 2021년 4월 총 3회에 걸쳐 연금의 10%를 인출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재정부담 가중, 연금 고갈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IMF에 따르면 2020년 두 번에 걸친 연금 중도인출에 각각 10백만 명, 7백만 명이 인출을 신청하였고 연금 납입자의 25%인 약 3백만 명이 연금을 소진하였으며, 총 363억 달러가 인출된 것으로 추정됨(IMF, Bloomberg).

국내경제

중앙은행,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대폭 인상

- 칠레 중앙은행은 3±1%의 소비자물가 목표수준 설정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수년 간 목표 수준 이하의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수준(2016~20년 평균 2.7%)을 유지해왔음.
- 칠레 중앙은행은 2019년 구리 가격 약세와 4분기에 발생한 소요사태로 인한 성장세 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3.0%에서 1.75%로 낮춘 바 있음. 한편,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로 일시에 하향 조정하였으나, 2021년 들어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에만 4차례에 걸쳐 3.5%p를 인상*하여 4.0%로 상향 조정하였음.
 - * 2021년 7월 25bp, 8월 75bp, 10월 125bp, 12월 125bp
- 2022년 1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이 7.7%(IMF 자료)를 기록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억제에 위해 기준금리를 4%에서 5.5%로 1.5%p 대폭 인상하였음. 인상 폭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 20년 만에 최대이자 3회 연속 인상으로, 금리 수준이 2009년 초 이후 가장 높아졌음.
- 한편,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병목 등으로 인해 2021년부터 중남미 지역의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서둘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음.
 - * 멕시코(2022년 2월): 5.5% → 6.0%, 2021년 6월 이후 6차례 인상
 - 페루(2022년 2월): 3.0% → 3.5%, 2021년 8월 이후 7차례 인상
 - 브라질(2022년 2월): 9.25% → 10.75%, 2021년 3월 이후 8차례 인상
- 변동환율제를 운용 중인 칠레는 투명한 거시경제 정책,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 등으로 미 달러화 대비 페소화 환율이 2015년 이후 수년 간 달러 당 650페소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음. 한편, 2019년 하반기 소요사태로 외국인 투자심리가 냉각되면서 2019년 말 환율은 전년 말 대비 7.0% 상승한 745페소를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 충격으로 상고하저의 환율 흐름을 보였음.
- 2021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불확실성 증대로 연말 환율이 866페소까지 상승하였으나, 2022년 들어 칠레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조치가 취해지고, 보리치 당선인의 급진적 정책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되면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 페소화 환율 추이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상수지	-6,445	-11,640	-10,454	3,370	-8,662
경상수지/GDP	-2.3	-3.9	-3.8	1.3	-2.6
상품수지	7,351	4,211	2,953	18,369	13,321
상품수출	68,823	74,708	68,763	73,485	93,317
상품수입	61,472	70,498	65,810	55,116	79,996
외환보유액	37,951	38,733	39,480	37,800	47,128
총외채	177,468	181,891	194,864	208,987	232,243
총외채잔액/GDP	64.1	61.1	69.8	82.7	70.1
D.S.R.	29.6	30.9	33.9	31.4	27.8

자료: IMF, EIU

2021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입 및 본원소득지급 증가로 다시 적자 전환 추정

- 칠레 경제는 구리, 금 등 광물자원 수출이 총수출의 약 50%에 달하는 원자재 의존형 수출구조로 원자재 국제가격에 따라 상품수지 규모가 좌우되고 있으며, 광산 개발 관련 다국적 기업의 해외 과실송금 등에 따른 본원소득수지 적자 규모가 경상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20년에는 전년도 하반기의 전국적 소요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상품수출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상품수입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한편, 글로벌 기업의 해외 과실송금액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결과 경상수지가 GDP 대비 1.3%의 소폭 흑자 전환을 기록하였음.
- 2021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구리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수출이 증가하는 한편,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내수경기가 살아나면서 상품수입 또한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상품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였음. 반면, 해외 과실송금액을 포함한 본원소득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17.8% 증가하여, 경상수지는 다시 적자 전환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에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상품수지에서는 흑자를 기록하나 본원소득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EIU, GDP의 -2.4% 전망).

구분(억 달러)	2017	2018	2019	2020	2021 ^e
상품수지	73.5	42.1	29.5	183.7	133.2
서비스수지	-38.2	-46.7	-51.0	-50.0	-92.1
본원소득수지	-114.5	-135.3	-101.4	-109.6	-129.2
이전소득수지	14.8	23.5	18.4	9.6	1.5

자료: IMF, EIU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은 FDI 유입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준 유지

- 칠레는 계속되는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광업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지속적인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 규모가 최근 수년간 370억 달러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2021년에는 외국인투자 확대와 글로벌 본드 발행(2021년 7월 17.5억 유로 및 37.5억 달러, 9월 21억 달러) 등 해외차입 증가로 외환보유액 규모가 전년 대비 24.7% 증가한 471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연도별 FDI 유입액(UNCTAD, 억 달러) : 121('16) → 62('17) → 77('18) → 125('19) → 84('20) → 137('21.상)

-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5.0개월분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며, 칠레의 우수한 신용등급에 따른 저리의 외채조달 능력, 2020년 5월 IMF로부터 확보한 239억 달러 상당의 탄력대출자금(Flexible Credit Line, 미인출 상태) 등을 고려하면 단기 유동성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국채 발행으로 외채규모는 증가 추세를 지속할 전망

- 칠레 정부는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 보전 등을 위한 외화표시 국채 발행으로 외채잔액이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음. 2021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전년도 82.7% 대비 70.1%로 개선되었으나, 팬데믹 이전의 60%대보다는 높아진 상황임.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0% 내외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총외채잔액 중 단기외채잔액 비중이 10% 내외 수준으로 외채구조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e
단기외채잔액/총외채잔액(%)	9.8	10.6	10.9	9.0	12.8
D.S.R.(%)	29.6	30.9	33.9	31.4	27.8
총외채잔액/총수출(%)	203.7	193.7	219.0	235.0	2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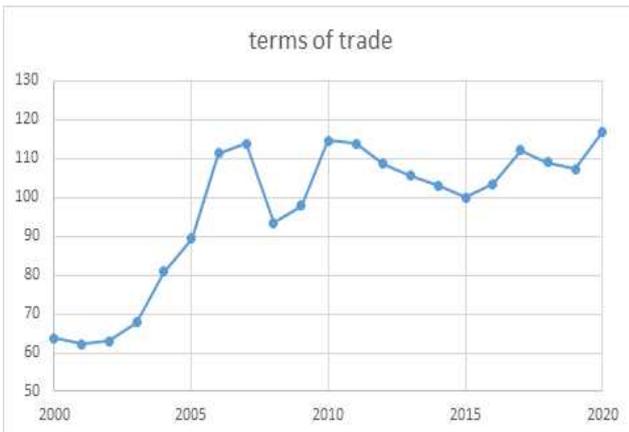
자료: EIU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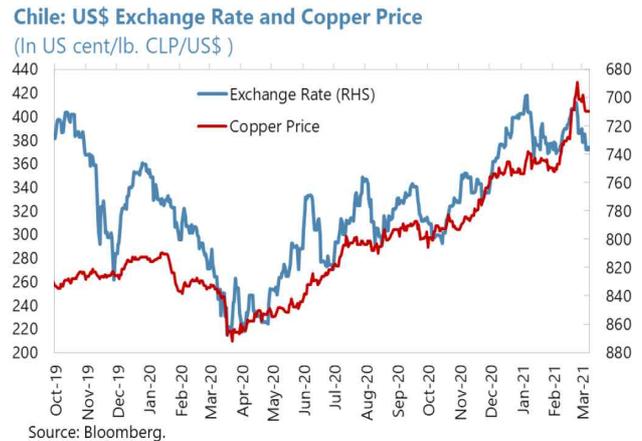
광물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등에 취약한 경제구조

- 칠레 경제는 구리를 중심으로 하는 광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원자재 국제가격 및 글로벌 경기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광물 등 원자재 국제가격이 하락했던 2014년 중반 이후 칠레는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저하되었음. 다만, 2020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구리 국제가격 회복 등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팬데믹을 전후로 약 20%의 가치 하락을 겪었던 페소화 환율은 구리 국제가격의 상승에 따라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으나 향후 구리 가격 하락 시 페소화 평가절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음.
- 한편, 칠레의 광업 부문은 용수 부족, 광석 품질 저하, 지역사회 간 분쟁, 환경영향평가 취득 난항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칠레 정부는 광물 국제가격 하락과 외부환경에 따른 영향을 분산하기 위해 광종개발의 다각화를 추진 중임(한국광물자원공사, 「칠레 광물 투자가이드」).

[그림 3] 칠레의 교역조건(OECD)



[그림 4] 페소화 환율과 구리 가격 추이(IMF)



성장잠재력

다양한 광물자원 보유 및 광산업 개발 잠재력 풍부

- 칠레는 구리, 리튬, 몰리브덴, 아이오딘, 레늄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구리, 리튬, 레늄 등의 세계 1위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부국임(한국광물자원공사, 「칠레 광물 투자가이드」). 광업은 그 특성 상 전력, 용수, 제조, 운송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수요 창출효과로 인해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구리의 매장량 및 생산량은 각각 전 세계 매장량의 23% 및 생산량의 28%로 세계 1위이며, 리튬과 레늄의 매장량도 각각 50.6% 및 54.2%로 세계 1위임.
- 리튬의 경우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주원료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 가량이 칠레-볼리비아-아르헨티나('리튬 삼각지대') 등 3개 국가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칠레 정부는 리튬을 양도 불가능한 전략광물로 지정하여 민간기업의 진출 및 개발에 제한을 두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 중임.
- 염호나 암염층에 매장된 리튬은 1979년 이후 국영기업이나 국가기관에 의한 개발 또는 '리튬 생산 특별 계약'을 통한 개발만이 가능하고, 추출 및 판매를 위해서는 원자력위원회로부터 사전에 할당량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작물 재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지형학적 이점 보유

- 칠레는 높은 일조량, 북반구 선진국과의 계절적 차이 등의 이점을 활용하여 포도, 체리, 사과, 베리, 호두, 육류, 연어 등과 같은 광범위한 농축수산물을 주로 북반구에 생산·수출하고 있음. 농축수산업은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보이는 주요 수출산업 중 하나로 2019년 농축수산업 무역수지는 2014년 이래 최고치인 약 11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EMIS(Emerging Market Resaerch)에 따르면 칠레는 2019년 생산량 기준 연어 세계 2위, 체리 6위, 포도 9위를 달성하였으며, 2024년까지 축산업 및 수산·양식업의 시장규모가 각각 연 4.6% 및 6.5%의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Fitch Solutions).
- 칠레는 남북으로 4,300km에 이르는 긴 영토의 다양한 기후조건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함. 북쪽의 아타카마 사막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에너지를 자랑하며, 남쪽에는 바람이 풍부하고 화산 지형이 밀집되어 있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칠레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에 참여하고 있으며, '에너지 2050(Energia 2050)'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전체 생산 전력의 7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탈탄소화 계획을 수립·시행 중임.
- 칠레 신재생에너지협회(ACERA)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칠레에는 태양열, 태양광, 수력, 지열, 풍력, 바이오 가스, 바이오 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뤄지고 있음. 태양광이 4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풍력(37.5%), 바이오매스(4.2%), 소수력(6.0%) 순임.
- 기존 신재생에너지원 외에 그린 수소 개발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2020년 11월 칠레 에너지부는 2030년까지 25GW 규모의 전력을 투입하여 1.5달러/kg 가격의 그린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는 '그린 수소 국가전략(Estrategia Nacional Hidrogeno Verde)'을 발표함.

정책성과

중남미 제3위의 FDI 유치국

- 칠레는 정치 안정성, 튼튼한 거시경제 및 건전한 재정정책과 일관성 있는 시장개방 정책 등으로 중남미에서 매력적인 외국인 투자처로 인식되어 왔으며,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제3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국임.*
 - * 브라질 248억 달러, 멕시코 291억 달러, 칠레 84억 달러 (2020년 기준)
칠레 FDI 유입액 추이(억 달러): ('15)204 → ('16)121 → ('17)62 → ('18)77 → ('19)125 → ('20)84 → ('21.상)137
- 칠레 정부는 1970년대 이후 외국인투자 자유화,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와 시장 완전개방 등의 정책을 단행한 결과 광업, 전력, 통신, 금융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이 크게 확대됨.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보고서의 기업환경순위(Business Environment Ranking)에 따르면 칠레는 2020년 조사대상국 190개 국가 중 세계 59위(중남미 1위*)이며, WEF(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9년 조사대상국 141개국 중 33위(중남미 1위**)임.
 - * 기업환경 중남미 주요국 순위: 멕시코 60위, 푸에르토리코 65위, 콜롬비아 67위, 페루 76위, 브라질 124위, 아르헨티나 126위
 - ** 국가경쟁력 중남미 주요국 순위: 멕시코 48위, 콜롬비아 57위, 페루 65위, 브라질 71위, 아르헨티나 83위
- 칠레의 FDI 유치 기본방향은 내·외국인 동등 대우,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 인정(투자원금 송금은 투자 이행 1년 후부터 가능), 희소광물에 대한 투자 및 외국 정부의 직접투자 금지, 정부 간섭 최소화 등으로 요약됨. 2016년 흩어져 있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들을 '외국인투자법'으로 통일하였으며 외국인투자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칠레 투자청(InvestChile)을 창설하였음.
- 칠레 투자청은 외국인투자 허가 신청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업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점점 확대(국제투자포럼, 세미나, 박람회, 기업 간 회의 추진), 투자 유치 조사 및 마케팅 지원(외국인투자자 숙박 제공, 기업 방문 지원, 법률 상담 등), 사후관리(재투자 진행, 법률 및 절차 관련 불공정 해결, 산업 인프라 및 인력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정치안정

2021년 12월의 대선 결선투표에서 좌파 보리치 후보 당선

- 2021년 12월 19일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에서 좌파연합의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가 우파의 호세 카스트 후보를 10%p 이상의 득표율 차이로 꺾고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었으며, 올해 3월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이다. 약 1개월 전인 11월 21일에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 카스트 후보와 보리치 후보가 각각 27.9%, 25.8%의 득표율을 획득하여 1위와 2위를 차지하였으나 두 후보 모두 과반에 미치지 못하여 결선투표에 이르게 됨.
- 보리치 후보의 승리는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우파 성향의 프랑코 파리시 후보에게 향했던 표의 상당수가 결선투표에서는 상대적으로 온건 좌파 성향의 보리치 후보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됨. 보리치 당선인은 야권 운동가 출신의 좌파 정치인으로 복지정책 확대를 비롯하여 칠레의 고질적인 사회문재인 불평등 및 빈부격차 해소를 외치며 카스트 후보 대비 반대 진영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선투표에서 승리하였음. 한편, 1986년생인 보리치 당선인이 올해 3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칠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연소 대통령이 될 예정이다.
-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총 155석의 하원 총선에서는 우파연합은 53석, 보리치가 이끄는 좌파연합인 AD(Apruebo Dignidad)는 37석, 또 다른 좌파연합인 NPS(Nuevo Pacto Social)가 37석, 호세 카스트가 이끄는 또 다른 우파연합은 15석을 획득하였음. 따라서 보리치 당선인은 향후 개혁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서는 중도좌파인 NPS 등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결선투표에서 보리치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산티아고 증시 지수가 6.18% 급락하고 폐소화 가치도 3% 추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칠레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으나, 2022년 1월 신정부 재무장관에 2016년 이후 칠레 중앙은행 총재로 자리를 지켜오면서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표방해 온 마리오 마르셀을 발표함으로써 급격한 경제정책 변화를 우려해온 시장에 안도감을 준 것으로 해석됨.

신헌법 제정에 따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 한편, 2021년 5월에는 시장, 시의원, 주지사 선거 및 신헌법 제정을 위한 제헌의원 선거 등 4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음. 선거 결과 보수 성향의 여당 연합은 제헌의원 155석 중 37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으며 진보 성향의 야당은 총 53석, 그 뒤를 이어 무소속 후보들이 48석을 차지하였음.
- 칠레 역사상 처음 치러진 제헌의회 선거의 직접적인 발단은 2019년 10월 발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으나 그 기저에는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피노체트 정권(1980~92년)에서 제정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교육·의료·복지 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었고, 대규모 시위 기간 중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이러한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여론이 신헌법 제정 요구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됨.
- 금년 중 제헌의회에서 제정될 신헌법은 각 조항마다 전체 의석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바, 보수 연합이 3분의 1 미만의 의석 수를 확보하는 데 그쳐 현행 헌법의 진보적 변화를 저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사회안정

실업률과 소득 불평등은 중남미 지역에서는 낮은 수준이나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높은 수준

- 실업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년 간 6~7%대를 보여 왔으나 2020년에는 팬데믹에 따른 경제침체로 인해 10.8%로 상승하였으며(IMF),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어 9.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IHS Markit). IMF는 중장기적으로 칠레의 실업률이 7%대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빈곤율의 경우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칠레의 빈곤율은 8.6%로 중남미 국가 중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World Bank).
* 칠레 빈곤율 추이: ('09)25.3% → ('11)22.2% → ('13)14.4% → ('15)11.7% → ('17)8.6%
-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의 경우 칠레는 2017년 기준 0.460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0.31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OECD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0.497)에 이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최근 불법이민 관련 문제로 북부 지역에 비상사태 선포

- 2022년 초 칠레 북부 국경지대에서 화물 트럭 기사가 트럭에 돌을 던지는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들과의 시비 끝에 폭행당하고 고가도로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화물 트럭 기사 연대는 칠레 정부의 국경 치안을 문제삼으며 불법 이민과 범죄 증가에 항의하는 도로 점거 시위를 벌였음.
- 베네수엘라의 경제침체와 정치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많은 베네수엘라인이 고국을 탈출, 중남미 각국으로 이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하루 500명에 가까운 베네수엘라인들이 볼리비아를 경유하여 비교적 경제사정이 좋은 칠레로 밀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피네라 대통령은 2022년 2월 15일 칠레 북부 4개 행정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인근 지역에 무장병력을 배치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볼리비아와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안데스 산악지역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불법 이민자 유입에 따른 북부 지역의 사회불안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남부 마푸체 지역 원주민의 무력 시위 지속

- 2021년 11월 남부의 마푸체(Mapuche) 지역 원주민과 칠레 정부군과의 무력 충돌로 원주민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여러 원주민 집단 가운데 가장 큰 약 170만 명(칠레 인구의 약 9%)에 달하는 마푸체 원주민은 자신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장과 산림을 정부가 강제 수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의 반환과 이들 지역의 독립을 요구하며 정부 공권력에 대해 간헐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음.

사회동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¹⁾는 ESG 요소가 칠레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Moody's의 평가대상 개도국 총 107개국 중 2·3등급(1등급 전무) 해당 국가는 42개국임.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저지대 해안가 침수와 가뭄, 사막화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청정 연료를 사용한 운송, 에너지 효율성 제고,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 관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사회)** 칠레의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위생·보건·교육 등 분야 등 복지 확대, 합리적인 교통·주택 비용, 높은 연금 지급 등에 대한 요구는 때로는 폭력적인 반정부 시위를 촉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배구조)** 신뢰성 있는 거시경제정책과 비교적 투명한 입법·사법·행정 시스템으로 칠레의 지배구조(Governance)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1등급)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 경제정책 추진

- 칠레는 중남미에서 경제가 가장 개방적인 국가 중 하나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조속한 편입을 위해 전 세계 GDP의 88%를 차지하는 70개 시장과 30여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 FTA 체결 국가: 한국, 미국, 중국, EFTA, 캐나다,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터키,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 칠레는 미국(2003년), 중국(2005년), 한국(2003년), 일본(2007년)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 FTA를 체결하여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는 중남미 내 첫 번째 FTA 체결국으로 2020년 기준 칠레의 제4위 수출상대국이자 제3위 교역(수출+수입)상대국임.
- 칠레는 또한 중남미 내에서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의 회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통합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태평양동맹(2012년)은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로 중남미 총 GDP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내 재화, 서비스, 복지,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도모, 회원국 간 균형적인 경제성장 도모, 아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둔 정치 협력을 위한 플랫폼 역할 등을 목표로 삼고 있음. 현재 싱가포르가 2022년 1월 준회원국(태평양동맹과 양자 FTA 체결을 의미)으로 가입하였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우리나라는 준회원국 가입 교섭을 진행 중이며, 에콰도르는 정회원국 가입을 준비 중임.
- 한편, 칠레는 1998년부터 APEC 포럼에 정회원국으로 참여해 왔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참여하는 등 중남미 지역을 넘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입지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11개국

외채상환태도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칠레는 OECD 회원국이자 A~A- 수준의 우수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1980년대 중남미 외채 위기 당시를 포함하여 파리클럽과 총 5번의 채무재조정(총 11.5억 달러)을 실시한 바 있으나, 2022년 2월 말 현재 채무재조정 잔액은 전액 상환한 상태임.
- 한편, 미 수은, 독일 Hermes, 영국 UKEF 등 주요 ECA들은 단기 및 중장기 자금 모두 원칙적으로 인수 가능하며, 영국 UKEF의 경우에는 중장기 자금을 대해 현지화 인수도 취급 가능하다는 입장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미평가 (고소득국)	미평가 (고소득국)
Moody's	A1 (2018.7)	Aa3 (2010.6)
Fitch	A- (2020.10)	A (2017.8)

중남미 국가로는 두 번째로 OECD에 가입

- 칠레는 1994년 멕시코에 이어 2010년 중남미 국가로는 두 번째로, 남미 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국에 해당하여 별도의 OECD 등급은 없음.

* 이후 중남미 가입국: 콜롬비아(2018년), 코스타리카(2021년)

2019년 시위 사태 이후 신용평가 3사는 칠레의 신용등급(전망 포함)을 하향 조정

- Fitch(2020년 10월)는 2019년 대정부 시위로 거세진 정부지출 확대 요구와 팬데믹 대응에 따른 재정부담 증대로 정부부채 규모가 중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칠레에 대한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하였음.
- Moody's(2020년 8월)는 칠레의 신용등급을 A1으로 유지하되,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2019년 대정부 시위 등에 따른 정부지출 압력이 커지고 있는 점, GDP 대비 부채비율의 증가속도가 2014년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칠레는 중남미 국가 평균 대비 안정적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정부의 친시장 정책 기조, 중앙은행 등 경제부처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거시경제 운용 등에 힘입어 중남미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신용도를 유지해 오고 있음.
- 2021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 및 주요 수출품인 구리 가격 상승세, 기저효과(전년도 경제성장률 -5.8%) 등에 힘입어 11.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22년에도 광물 자원의 국제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높아진 물가 상승 심리에 대응코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낮은 경제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광업 부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로 인해 광물자원의 국제가격 변동 등에 의해 경상수지와 재정수입 규모가 좌우되고 있음. 다만, 정부의 채무부담이 낮은 편이고 안정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및 해외 차입시장에 대한 높은 접근성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외화 유동성 위험은 제한적임.
- 다양한 광물·농수산자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입지조건,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경제정책 등은 칠레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단, 소득 불평등에 따른 시위 등 소요 사태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가 잠재하는 가운데 신헌법 제정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향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복지예산 확대 등 이전과는 차별화된 경제정책 방향성이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